



박소현의 섹.시.토크

유난히 간지럼을 잘 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상대가 내게 간지럼을 태우려 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몸을 움츠리며 어쩔 줄 몰라 한다.

섹스도 비슷하다. 오르가슴을 쉽게 느끼는 사람, 빨리 흥분에 도달하는 사람은 섹스를 하기 전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몸이 일찍 달아오른다.

얼마 전에 만난 선배언니는 20대 중반에 결혼해 벌써 결혼 십년차에 이르렀다.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과의 사이도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오르가슴을 느껴보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언니가 심각한 불감증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혹시 동성애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와 함께 꽤나 열심히 추위를 해 나가던 나는 뜻밖의 단서 하나를 발견



했다. 선배언니의 또 다른 고백이 이어진 덕분이었다.

언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그 전의 애인들도 포함해서)에게 먼저 섹스를 하자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매번 남편이 자는 신호를 보내와야 섹스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남편에게 먼저 신호를 보낼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밝힌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남편에 의해 마지못해 섹스에 임하는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섹스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캐릭터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캐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어? 그럼 오늘은 언니가 들어대 봐” 즐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오르가슴은 때 논 당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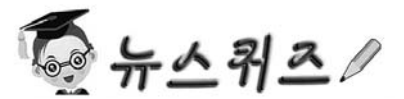
릭터를 크게 나누면 대략 수동적인 여자와 적극적인 여자로 나누어진다. 처음부터 수동적인 여자의 캐릭터를 맡게 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바꾸려고 시도를 하면 ‘당신 왜 이래?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당신 바람났어?’ 등의 굴욕적인 질문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한 캐릭터에서 빠져나오기

밝히는 여자가 행복하다

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니도 마찬가지였다. 섹스에는 별로 관심 없는 여자, 밝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여자라는 캐릭터가 부각된 뒤로 심판을 죽 그 캐릭터만 유지해 왔었다.

문제는 이러한 캐릭터가 섹스의 완성도 혹은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불감증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내 문제인 것이, 언니가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언니 안에 있었다. 내가 간지럼을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손이 아무리 무뎠도 자지러지지 마련이다. 내가 적극적으로 흥분할 준비, 즐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누구의 섹스를 하더라도 오르가슴은 때 논 당상에 가깝다. 그리고 적극성이라는 것은 상대가 오랜 공을 들여 나를 흥분시켜 놓아야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발휘되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먼저 하자고 제안하고 답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누굴도 모르 오르가슴을 쾅쾅하는 것에 능한 이들일 것이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섹스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여자가 더 많은 것을 또한 번개 달으며 나는 선배언니에게 누누이 강조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어? 그럼 오늘은 언니가 먼저 들어대 봐.” <연애칼럼니스트>



92. '13월의 보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느라 바빠졌습니다. 국세청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8개 항목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 ①골프 접대비 ②보험료 ③신용카드 ④교육비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처: 011-632-6121)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7일(음 10월 28일 乙亥)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검색절정 키워드

모델 선우선 '장동건의 여인'으로 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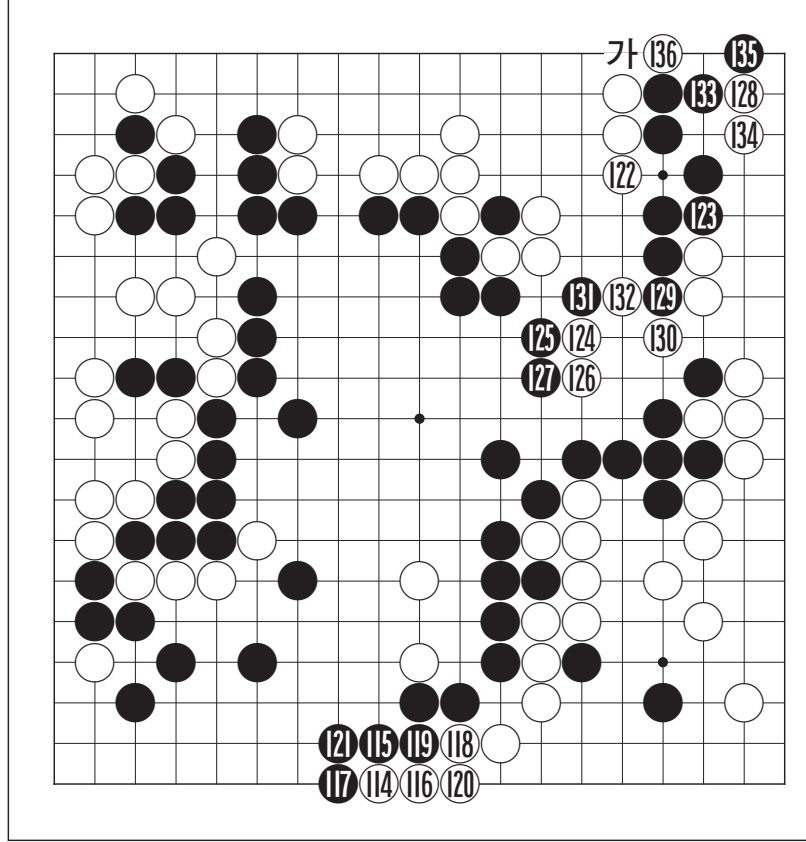
TV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인기가 증영 뒤에도 식을 줄 모른다. 5일 24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지만 결말을 놓고 일부 네티즌들은 "못본걸로 할테니 제발 다시 좀 부탁", "부상을 입은 스태프들이 완전히 치료를 끝낸 후 다시 감독관 DVD를 위해 제대로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부터 수험생 개개인에게 통지된다는 소식도 집중 클릭 세례를 받으며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올해 성적표는 영역별 등급(1~9)만 표시된다. 모델 선우선(27)도 최근 정경원의 새 광고 모델로 낙점, 톱스타 장동건(35)과 함께 CF를 찍으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외 배우 김혜수(37)가 최근 6년만에 가수로 컴백한 박진영(35)의 타이틀곡 '니가 사는 그 집'의 뮤직 비디오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한다는 소식도 화제를 모았다.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에 깜짝 출연한 배우 김태희(27), 최근 '신지혜메이드'라는 식품회사를 설립하고 CEO로 변신한 흥성 그룹 코요테의 신지(26)도 검색어에 올랐다.



가수 박진영의 타이틀 곡 '니가 사는 그 집'의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김혜수.



제188회 전국체전 마지막 관문 7보(114~136) 여성 일반부 결승전

현재의 형세는 흑이 반면 15집 정도의 차이로 리드하고 있다. 과연 이수빈 5단 최강대역전의 기회가 찾아올 것인가. 흑 ▲가 방심이 빚어낸 수로 역전의 단초를 제공한 수였다. 이 수로는 당연히 하면 118에 막아야 했다. 이 곳은 역할내기 7집 짜리로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자리였다.

바둑소식

목진석, 연간 최다승 보인다. 목진석 9단이 연간 최다승 기록 수립에 2승을 남겼다. 목 9단은 6일 열린 제3기 원외배 10단전 8강전에서 이정우 6단을 181수 끝에 흑 불계로 제압, 올해 89승을 달성함으로써 연간 최다승(90승) 기록에 1승차로 다가갔다.

굿모닝 잉글리쉬 <1050>

How would you like to pay? 어떻게 지불하시겠습니까? A: How would you like to pay? Cash or credit card? B: Credit card. A: Then you can pay when you check out. B: All right. When is check out time? A: Before twelve o'clock. Here is your key, sir. Have a nice stay.

오하오우 니혼고 <1050>

ファッション雑誌(ざっし), 知っていますか. 패션 잡지 아십니까? A: 「バザル」っていうファッション雑誌(ざっし), 知っていますか. A: 「メモワル オフ ア ゲイシャ」という本に影響(えいきょう)されたようです. A: 「何ですか. その本(ほん)は. A: 今もベストセラリストに入ってる本です.

니하오 쑹구위 <27>

她是不是婆老师? 저 사람 강선생님 아니야? A: 你看他. Ni kan ta. B: 谁? Shui? A: 他是不是婆老师? Ta shi bu shi jiang laoshi? B: 他不是婆老师. Ta bu shi jiang laoshi.

한자 이야기 <667>

飽食暖衣(포식난의) 배부를 포, 먹을 식, 따뜻할 난, 옷 의. 포식난의(飽食暖衣)는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는다는 뜻으로 '난의포식'이라고도 하며 의식(衣食)이 넉넉한 생활을 비유한다. 맹자는 도덕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가 행할 왕도(王道)라고 주장하였다.